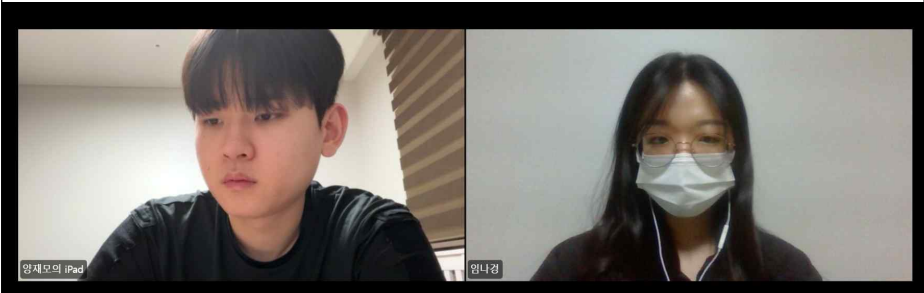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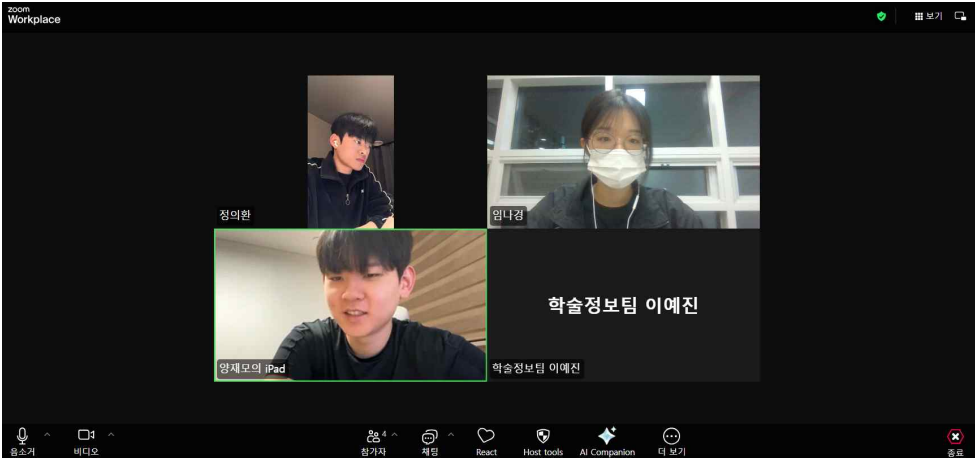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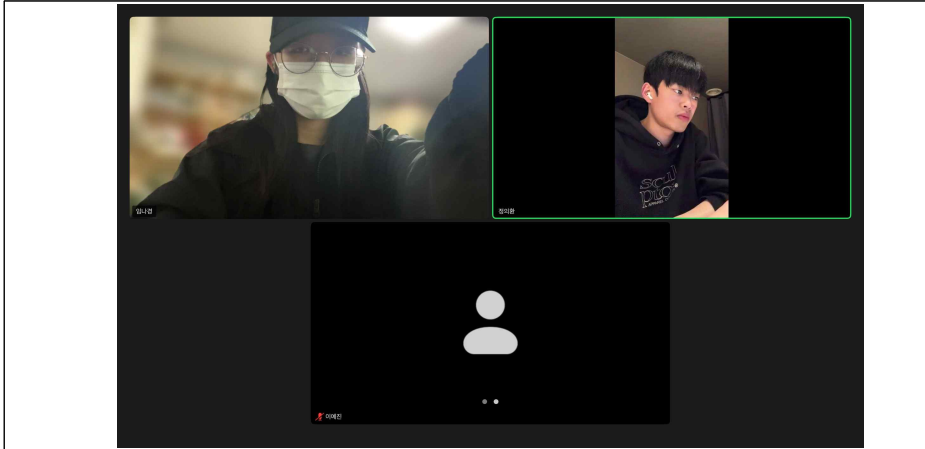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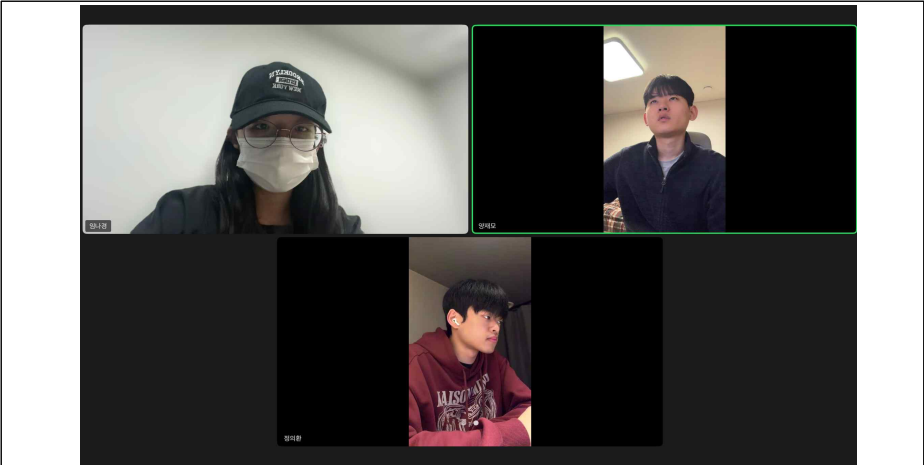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 광패붕

1주차	일시	3월 25일 20:00 - 20:33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임나경(2631096)	O
		양재모(2271292)	O
	정의환(2371020)	X	
진도	도서명: 광기, 패닉, 붕괴 금융 위기의 역사	진도페이지: 1p. ~ 117p.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양재모, 임나경]</p> <p>임나경: 금융 위기가 단순히 경제 문제라기보다 사람들의 심리에서 반복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거로 생각하고 계속 투자하는 모습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또 위기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결국 시장은 숫자보다 사람들의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느꼈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p> <p>양재모: 최근에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금융 관련 책을 찾다가 고르게 되었다. 책 앞부분에 광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광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나 금융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고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책이 어렵다고 느꼈다.</p>		

	일시	3월 30일 20:00 - 20:36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임나경(2631096)	O
		양재모(2271292)	O
		정의환(2371020)	O
	이예진 멘토님	O	
진도	도서명: 광기, 패닉, 붕괴 금융 위기의 역사	진도페이지: 118p. ~ 236p.	
2주차	토론 내용	 <p>[상단 좌측부터 정의환, 임나경, 양재모, 이예진 멘토님]</p> <p>임나경: 금융 위기가 한 나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 특히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7장에서 한 국가에서 시작된 불안이 다른 나라의 시장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가 연쇄적으로 퍼지는 과정이, 단순히 경제 구조 때문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심리와 불안이 국경을 넘어 작용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p> <p>양재모: 금융 시스템이 단순하게 돈의 흐름 같은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불안 심리 같은 요소가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용이 확대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동시에 위기도 커진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과거부터 낙관과 공포가 반복되어왔으니, 앞으로 투자하거나 경제 상황을 볼 때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요소도 고려해야겠다고 느꼈다.</p> <p>정의환: 금융 위기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기대치는 높아지고 신뢰가 과도해진다.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금융 위기가 시작된다고 느꼈다.</p>	

3주차	일시	4월 6일 20:00 - 20:40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임나경(2631096)	O
		양재모(2271292)	X
		정의환(2371020)	O
		이예진 멘토님	O
진도	도서명: 광기, 패닉, 붕괴 금융 위기의 역사	진도페이지: 237p. ~ 363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나경, 정의환, 이예진 멘토님]</p> <p>임나경: 금융 위기가 한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빠르게 퍼진다는 점, 특히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있어서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부나 국제기구가 위기를 막으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느껴졌다.</p> <p>정의환 : 이전에는 왜 사람들이 과열되어서 경제 버블이 생기는가, 이번엔 경제 버블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크게 번지고 커지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였다. 처음에는 한쪽에서 작게 시작된 문제여도 불안감이나 신용 문제가 쌓여있으면 다른 시장이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p> <p><토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하는 게 좋은가, 지켜보다가 개입을 하는 게 좋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F 금융 위기 때처럼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불안감이 커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해서 불안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초반부터 문제를 잘 잡고 사후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해서 대처해서 해결을 해버려야 한다. 어차피 연결이 되어있다. 위기인 나라가 먼저 타국에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반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지키기, 부채 관리하기, 현금 자체로 보유하기 		

4주차	일시	4월 13일 20:00 - 20:38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임나경(2631096)	O
		양재모(2271292)	O
	정의환(2371020)	O	
진도	도서명: 광기, 패닉, 붕괴 금융 위기의 역사	진도페이지: 364p. ~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임나경, 양재모, 정의환]</p> <p>임나경: 금융 위기는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금융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 <p>양재모: 현대 금융이기가 하나의 국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금융 문제가 세계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고 여러 금융 위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자본이 들어온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폭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잘 대응해야 한다.</p> <p>정의환: 앞에서 연결됐던 법이랑 붕괴 사례가 결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책이 마무리를 잘 냈다고 느꼈다. 한 나라 안에서 대응하는 방식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처들과 국제적으로 IMF나 국가 단위 협력 대응이 소개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금융 위기는 시장 사이보다는 신뢰를 다져가는, 누가 책임을 지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인상 깊었다.</p> <p><토론> 금융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심리라면,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나 제도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투자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과도한 낙관이나 공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 위기를 직접적으로 만든 쪽은 현실에서는 책임을 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인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완화가 되겠지만, 완전히 막을 순 없다. 불안, 공포 등 심리적인 부분은 교육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임나경 (2631096)	<p>무거운 금융 테마의 책이지만 독서클럽을 통해 조원들과 매주 분량을 나누어 읽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p> <p>특히 금융 위기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원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연결해 토론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p> <p>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유익한 도서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자 마음가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p>
	2	양재모 (2271292)	<p>처음에 독서클럽에 지원하기 전 책을 선택할 때 단순히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금융 관련 테마의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저한테는 비록 책이 아주 어려웠지만, 금융 위기에 대해 알아가면서 조원분들과 질문하며 토론을 해보는 부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독서클럽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책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p>
	3	정의환 (2371020)	<p>이번 독서클럽을 통해 평소라면 혼자서 끝까지 읽을 수 있을 지 모를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같은 책을 3~4명이 읽어도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서로 얘기하며 책의 내용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연결해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4		
	5		